

研究論文

樂章 「親祀文廟頌」의 美學 探究

신 두 환*

I. 문제의 제기	IV. 결론
II. 樂章 「親祀文廟頌」의 位相	<참고문헌>
III. 「親祀文廟頌」의 敍事樣相과 그 文藝美學	<국문요약>

I. 문제의 제기

유교를 국시로 한 위대한 혁명! 우리 역사의 위대한 세기! 고려말기 개혁을 주장하는 신진세력들에 의해서 조선건국이 완성되었다. 이 건국의 분위기에 맞추어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건국의 찬양과 왕조의 만세를 외치는 일련의 예술 활동들이 힘차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공간에 치세의 음악으로 악장문학이 성행하면서 옛 고려의 악장은 改修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崇儒抑佛정책에 맞추어 유교의 성격을 지닌 새로운 악장들이 태동되어 새로운 세계에 조응되고 있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성사를 악가에 입혀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찬미하려는 신과 인간과의 교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마다 있었다. 시와 음악과 무용의 종합예술인 악장은 우리 시가문학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분야이며 조선전기의 악장은 그 중에서도 백미이다.

악장에 대한 연구가 조선건국을 찬양하는 국문악장에만 경도되어 있는 감이 있

* 성균관대학교 강사, 한국한문학 전공(lovestudent@hanmail.net).

으며 한문으로 기록된 악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것도 작품 주변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악장이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이 강하여 그 문학성이 떨어진다는 선입견 때문에 그 작품의 내용이나 구성, 표현 면에 중점을 두고 연구된 논문들은 소략하기 이를 데 없다. 악장 「친사문묘송」은 성종의 문치주의 정치개혁과 병행되어 창작되는 유교적 프로파간다로서 정치서사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의 작자인 訥齋 梁誠之(1415~1482)는 집현전 학사출신이며 世宗에서 成宗까지 여섯 임금을 섬기면서 41년 동안 館閣의 중심에서 활동한 관료학자이자 경륜가로서 조선 守成期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일찍이 文一平은 “朝鮮에는 學者와 文士는 많으나 經綸家는 적다. 大義名分을 위하여 함부로 對外硬을 부르짖는 이와 그렇지 않으면 仁義와 空彈을 가져 國防의 대본을 삼으려 하는 迂遠하고 無謀한 儒者類의 경륜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당대의 현실을 정시하여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一國의 정치를 가장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잘해가자는 경륜가는 희귀하다. 이조 초기 경륜가는 먼저 梁誠之를 제 일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라고 평하여 訥齋를 조선 제일의 경륜가로 주목했다.¹⁾

조선시대의 경륜가란 의미에는 정치와 결부된 관각문인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 개국의 악장 작가로는 정도전, 권근, 하륜 등이 유명하였고, 조선 수성기 악장 작가들로는 서거정, 양성지, 최항, 등이 유명하였다. 대부분의 작가는 집현전의 문인들로 풍부한 정치경력이 있는 학자 겸 경륜가들이었다. 이들의 악장에 대한 편찬 의도는 조선왕조의 유교적 개혁의지와 맞물려있었다. 조선의 악장혁신운동은 국가의 정치적 개혁과 사회풍속의 교화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실용성에는 왕조에 대한 찬미와 경계의 의미가 함의되어 있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일은 음악으로도 남는가? 제사는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그 사람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좋은 장치이다.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칠만한 위대한 인물이나 업적을 오래도록 전하게 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 노래를 지어 부르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고 기억된다는 사유방식이 세상 어느 구석에는 있을 것도 같다는 막연한 상상을 악장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

1) 文一平, 『湖巖全集』(3卷)(三文社, 1978), 「史外移文」篇 참조

본고에서는 조선전기 성종의 정치행보 중에 대성사였던 친사문묘의 성스러운 행사를 악장의 형식에 입힌 「친사문묘송」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친사문묘송」은 『訥齋集』, 續編 卷2, 「雜著」, 부분에 그 서문과 함께 실려 있으며 『成宗實錄』 卷八十三, 成宗八年 八月 條 에도 실려 있는 바 『눌재집』은 정조 임금 때에 규장각에서 편찬된 것이고 왕조실록은 그 보다 앞선 것이어서 성종실록이 선본이라고 판단된다.

「친사문묘송」은 그 배경이 되는 친사문묘의 내용이 그 서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친사문묘의 역사적 사실이 송의 문체로 창작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 가사는 장황한 역사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사언 구와 같은 악장의 가사로 간결하게 정제되어야 하고 악기의 연주와 무용을 의식하여 그 음조미를 살려내어야 하는 예술적인 작업이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 사실이 음악가사로 정제되어 樂章이 되기까지 거치는 예술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악장 문예의 까다로운 형식은 오히려 새로운 문예미를 성장시키고 발전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 「친사문묘송」은 동양전범의 문예 장르인 頌의 형식과 성격을 엄격히 고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을 배경으로 한 신선한 구상과 참신한 창조정신이 드러나고 있는 악장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樂章은 조선 건국기에 창작된 작품에 대하여는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조선 건국기 이후의 樂章에 대한 연구는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작품론이나 작가론으로 심도 있게 연구되지 않고 있다.

조선전기의 악장은 궁중의 제전이나 연례 때 연주되는 음악에 맞추어 부르던 가사로 파악하고 있다. 그 주제는 조선건국의 성업이나 창업의 공덕을 기리거나 임금의 만수무강과 자손의 번성 등을 송축한 내용으로 조선의 창업을 칭송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 형식은 4구 2절의 경기체가의 영향을 직접 받아 이루어진 것이며 한시의 형식을 이어받은 한문 악장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국문악장으로 일컬어지는 작품으로는 집현전 학사들이 지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정도전의 「납씨가(納氏歌)」, 「정동방곡(靖東方曲)」, 「신도가(新都歌)」, 권근(權近)의 「상대별곡(霜臺別曲)」, 변계량(卞季良)의 「화산별곡(華山別曲)」, 윤회(尹淮)의 「봉황음(鳳凰吟)」 등이 있고, 또 작자 미상인 「축성수(祝聖壽)」, 「성덕가(聖德歌)」, 「유림가(儒林歌)」, 「오륜가(五倫歌)」, 「연형제곡(宴兄弟曲)」, <북

전(北殿)> 등이 있다. 형태별로 분류하면, 한시 현토체, 속요체, 경기체가체, 신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작자로는 주로 개국 공신들이었다. 이들의 악장을 의식해서 순전히 한문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한문악장’이라고 구분했다.

訥齋의 漢文樂章인 「친사문묘송」을 중심으로 악장의 위상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놀재의 「친사문묘송」은 부분적으로 연구된 적이 있다²⁾ 그러나 작품전체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조명된 독립된 논문은 없다. 「친사문묘송」은 그 창작 시기나 악장의 내용, 구성, 표현 등의 특징에서 조선 악장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으로 작품 전체를 재조명하여 조선시대 한문악장의 위상을 정립해 놓는 작업은 우리 민족문화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II. 樂章 「親祀文廟頌」의 位相

「친사문묘송」을 악장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 작품은 악장이란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악장으로 연주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받고 있다. 악장이 아니라면 성종의 친사문묘의 성대한 행사를 목도하고 지은 일반적인 한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오언이나 칠언의 한시가 생활화 되고 있던 시절에 일반 한시를 사언으로 지었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 작품은 사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언의 시기는 『시경』 이후 일반 한시로 지어진 예가 그리 흔하지 않았다. 악장이나 제문의 哀贊 등의 특별한 목적 없이 사언의 한시를 짓는 예는 『시경』 이후 고대에 도연명을 비롯한 몇몇 작가에 의해 사언고시가 일시적으로 있긴 했으나 이후의 중국의 문학사에도 그리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³⁾ 조선전기에는 더더욱 드문 일이었다. 왜 굳이 사언으로 지었을까? 중국 청대의 吳納은 그의 「文章辨體序說」에서 古詩를 설명하며 「四言」조항에서 『詩經, 國風』 雅와 頌의 詩는 대부분 四言으로서 章을 이룬다⁴⁾라고 했

2) 신두환, 『조선전기 민족음악과 관각문학』(국학자료원, 2004); 신두환 「놀재 양성지의 ‘頌’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9집(2001).

3) 吳納, 『文章辨體序說』, 「古詩, 四言」, 學詩者 日以聲律爲尙 而四言益鮮矣.

다. 중국 대륙에서도 사언시가 잘 지어지지 않는 것이 조선전기 악장의 문체에 서 자주 드러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언시라고 해서 무조건 악장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언 한시가 악장의 문체로 쓰여 지는 점이 많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양성지의 「친사문묘송」은 우선 『용비어천가』를 비롯한 四言 詩經體로 기록된 조선전기의 다른 악장의 문체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친사문묘송」은 그 구성면이나 작품의 형식에 있어서도 樂章에 가깝다. 한 구는 사언 대구로 이루어지고 한 장은 여덟 구로 이루어져있다. 「親祀文廟頌」은 각 장마다 그 장의 명칭을 정하고 한 장은 8구 라고 기록하여 각 장을 독립시켜놓고 있다. 예를 들면 작품의 끝에다가 ‘皇聖一章 章八句,’ ‘廟食一章 章八句’ 같이 기록된 것인데 왜 장의 명칭을 기록하였을까? 이것은 일반 한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이다. 「親祀文廟頌」은 총 8장으로 각 장은 길이나 형식이 똑같은 연장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우리문학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樂章에 전 8장으로 이루어진 연장체의 작품들이 산재해 있는 것과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면 樂章이라고 할 수 있는 「翰林別曲」이나 「화산별곡」도 전체가 8장의 연장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음악과 무용을 수반한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訥齋의 「친사문묘송」은 연주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공식 행사에 연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樂章의 형식에 맞추어 쓴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시경』의 頌도 그렇듯이 ‘송’의 문체는 악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親祀文廟頌」은 ‘송’의 문체로 쓰여 진 작품이다. 이것은 일반 시와는 또 다른 궁정문학의 한 갈래이다. 『文心雕龍』에서는 ‘頌’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옛날의 으뜸가는 禮가 세 가지인데, 첫째가 燕이고, 둘째가 亨이고, 셋째가 祀이다. 이른바 吉事이던, 凶事이던, 軍隊이건, 賓客이던, 佳節이던, 간에 모두 다 이 세 가지를 위주로 예를 이룬다. 옛날의 으뜸가는 악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風이고, 둘째가 雅이고, 셋째가 頌이다 소위 金·石·絲·竹·匏·土·革·木으로 모두 다 이 세 가지 악을 이룬다. 예와 악이 서로 관련을 지으며 사용되니 예는 악이 아니면 행할 수 없고, 악은 예가 아니면 거행 할 수 없다⁵⁾

4) 吳納, 『文章辨體序說』, 「古詩, 四言」, 國風雅頌之詩, 率以四言成章.

5) 『通志二十略』, 鄭樵(撰), 王樹民(點校)(中華書局出版, 1995). “古之達禮三.. 一曰 燕, 二曰 亨, 三曰 祀. 所謂 吉凶軍賓嘉 皆主此三者以成禮 古之達樂三 一曰 風, 二曰 雅, 三曰 頌 所謂 金石絲竹匏土革木

위의 인용문에서 송은 음악과 관련되어 있다. 송의 문체는 禮와 관련시켜서 吉事, 凶事, 軍隊, 賓客, 佳節 등의 잔치와 제사 등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을 모두 소위 八音인 金·石·絲·竹·匏·土·革·木으로 연주해 내어 악장을 이룬다. 예가 아니면 악이 행해질 수 없고 악이 아니면 예가 행해질 수 없다. 송은 바로 예와 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송은 盛德을 讚美해서 그 상황을 서술한 것이다. 殷이후 頌에 대하여 형식과 내용이 완비되기에 이른 것이다. 대체로 ‘教化에 의해서 一國을 잠재우는 것’을 ‘風’이라 하고 ‘風俗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이끄는 것’을 ‘雅’라고 하며, 容態를 神明에게 告하는 것을 頌이라 한다. 頌은 神에게 告하는 것을 爲主로 하므로 내용도 순수한 찬미로 始終一貫 한다. 연희석에서 부르는 일반적인 음악과는 다르다.⁶⁾

歌頌과 讚美, 이것은 문학의 시원이자 ‘송’의 키워드이다. ‘송’은 성덕을 찬미하는 것으로 연희석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악장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송’은 인간과 신의 교감이며, 천지만물의 화육이 달려있는 하늘과 땅의 교감이다. 악장은 크게 風·雅·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風은 한 국가에 대한 악장으로 국가의 안위를 이끌어 내고, 雅는 풍속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다스리는 데 영향을 끼친다. 악장의 풍요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頌은 이 사실을 시나 음악이나 무용으로 장식하여 신에게 고하는 것이다. ‘송’은 신에게 고하는 것을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그 내용도 순수한 찬미로 시종일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악장의 성격을 유추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頌이다. 송이 곧 악장이라고 견해를 좁힐 수 있을 것 같다.

頌은 容이며 容은 무용 모습의 뜻을 지녀 노래에 춤을 곁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⁷⁾

皆主此三者 以成樂 禮樂相須以爲用 禮非樂不行 樂非禮不舉.”

6) 『文心雕龍』, 「頌讚」. “四始之至 頌居其極 頌者容也 所以美盛德而述形容也 昔帝嚳之世 含墨爲頌 以歌九韶 自商已下文理允備 夫化偃一國謂之風 風正四方謂之雅 容告神明謂之頌 風雅序人事 兼變正 頌主告神 義必純美 魯國以公旦次編 商人以前王追錄斯內 宗廟之正歌 非譏譽之常詠也.”

위의 인용문에서는 ‘송’의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볼 수 있다. 容은 무용을 뜻하며 그 대상이 되는 영웅의 뛰어난 행적을 형상화하여 무용으로 표현한 것이며, 여기에 노래와 춤을 겸하여 공연된 것이 악장이며 이것은 후대에 오페라나 연극의 기원이 되기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淸대의 吳納은 “ 훌륭한 덕을 형용하고 아름다운 공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일러 ‘송’이라고 한다”고 했다.⁸⁾ 성종의 친사문묘의 성한 덕을 찬양한 「친사문묘송」은 악장의 걸작이다.

徐居正이 지은 『東文選』에는 총 8편의 송이 실려 있다. 고려시대 李奎報의 「聖皇朝享大廟頌」·「平契丹頌」·「尹司業威安撫南原頌」·「法華經頌」·「洛山觀音腹藏修補文并頌」을 비롯하여 李齊賢의 「謁三王廟各獻頌」·李穡의 「受命之頌」·조선시대 李季甸의 「集賢殿藏書閣頌」이 있다.⁹⁾ 이것을 바탕으로 頌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郊廟의 성격을 지니는 송’·‘무공을 노래한 것’·‘난을 평정한 공을 읊은 것’·‘종교적인 찬송’·‘건축물 보수에 관한 찬송’·‘천자의 명을 받고 지은 송’·‘문치를 숭상하여 교화를 이룬 뜻을 읊은 송’ 등으로 나타나며 ‘송’의 성격이 현실주의적인 歌功頌德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부 학자들은 조선전기의 樂章의 명칭에 회의를 표시하며 樂章을 頌禱詩라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와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다.¹⁰⁾ 김문기 교수는 樂章에 대한 구체적 접근을 시도하여 “「용가」나 「월인」이 묘악에 쓰이지 않았는데도 樂章으로 취급하고 鄭道傳, 權近, 卞季良 등이 지은 것도 樂章이 아닌 데 樂章으로 다루고 있다. 이로 보아 樂章이라는 음악적 명칭은 頌禱를 내용으로 한 전 시가를 포괄하여 지칭할 수 있는 적당한 명칭이 아님”이라고 하며 頌禱詩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남춘 교수는 “기능적인 면에서 頌禱詩라는 명칭은 가능하지만 『악장가사』나 『악학궤범』에 있는 노래 중에는 그 내용상 頌禱가 아닌 것도 다수 있으므로, 主樂從詞는 논외로 하더라도 전체를 頌禱詩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頌禱詩는 그 의미상 頌의 정의와 가깝다. 樂章이란 공식행사에 연주될 수 있는 음악으로 가사는 물론 무용을 겸하는 것이며 이와 관

7) 阮院, 『聖經室集』, 「釋頌」, “頌字即容字也…惟三頌各章皆是舞容故稱爲頌”

8) 吳納 『文章辨體序說』, 「古詩, 四言」.

9) 『東文選』卷50, 「頌」, 참조

10) 허남춘, 『古典詩歌와 歌樂의 傳統』(월인출판사, 1999), 125~126쪽.

런이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樂章은 음악과 관련된 특정한 문학의 형태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용어이다. 崔珍源 교수는 “樂章은 ‘王朝의 樂’ 즉 ‘樂의 制度’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 樂은 禮樂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다”¹¹⁾고 하였다. 「친사문묘송」은 왕조의 음악이며 악의 제도에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趙東一 교수는 樂章·경기체가·가사·시조를 한꺼번에 논하면서 “사대부 문학은 공적인 문학과 사적인 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樂章은 공적이기만 하고, 경기체는 공·사 두 가지가 모두 들어 있으며, 시조와 가사는 사적이기만 하다”고 하면서 “樂章은 공적인 문학에 속 한다”¹²⁾고 했다. 여기에서 공적인 성격은 관료들에 의해서 창작된 관각문학의 성격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학자들이 주장하는 악장=악부로 보는 견해에는 수긍할 수 없다. 민간악부에는 저속한 표현과 은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적인 성격이 되지 못한다. 악장은 저속한 표현이 없으며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민간악부와는 구별이 된다. 「친사문묘송」은 저속한 표현이 없고 그 성격이 공적인 악장을 지향하여 창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식적인 詩와 樂과 舞의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의식하면서 창작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놀재는 「친사문묘송」과 형식이 똑같은 또 다른 악장 「평삭방송」을 지었으며 이 서문에서 악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에 樂舞를 정하여 郊祀와 宗廟에 알리고, 鐘磬(鍾鼎)에 새겨서 영구히 보이는데, 이것이 어찌 특히 한 시대의 위대한 功績일 뿐이겠습니까?¹³⁾

위 언급에서 「平朔方頌」이 樂章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볼 수 있으며 사언이절의 분장체와 사언 팔구를 한 장으로 하는 총 여덟 장의 연장체까지 그 구성과 형식이 똑같은 「친사문묘송」도 악장이라는 유추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頌’의 기본적인 정의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악

11) 崔珍源, 「고려가요 연구의 현황과 전망」,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총서』(1)(집문당 1996).

1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지식산업사, 1991), 280-311 쪽

13) 『訥齋集』卷5, 「雜著」, 「平朔方序」와 『世祖實錄』, 13년9월 條에 실려있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世祖實錄』을 참조한다 “于以定樂舞而奏郊廟 銘鐘鼎而詔永久 此豈特一代之偉績也哉”

장의 정의를 송의 문체와 결부시켜 내려 보면 頌의 장르는 음악과 무용을 수반하고 있었고, 인간과 신의 교감을 의도하는 문체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치세의 음악이며, 사실에 입각하고 역사적인 비의를 통한 정통성을 고려하고 우미한 언어로 된 순수한 찬미의 노래이다.

교묘에 올리는 음악과 춤은 엄숙하고 장중해야하며 예의와 격식에 맞아야 한다. 교묘에서 연주되는 樂章은 일반 음악에 비하여 신성한 성격을 지녀야 하고 예의 법도에도 맞아야 하며 典雅해야 한다. 訥齋는 이것을 의식하면서 「친사문묘송」을 지었고 기존의 樂舞중에서 그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공연하려는 뜻이 있었다. 「친사문묘송」은 형식과 내용, 표현된 언어 등에서 전통적인 樂章의 성격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訥齋의 「친사문묘송」은 성종의 친사문묘의 성대한 행사에 나타난 유흥진작의 공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功成制禮作樂이며, 총 512자로 창작된 방대한 작품이다. 한문 악장인 「親祀文廟頌」은 詩樂舞의 종합예술로 공연될 것을 의식하고 창작한 악장 중의 백미이다.

III. 「親祀文廟頌」의 敍事樣相과 그 文藝美學

‘송’의 문체에 대한 문예미학적인 요소들은 어디에 있는가?

저 송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전아함을 그 본성으로 하니, 문사는 반드시 淸鑠해야 하며, 묘사하여 펼치는 것은 부와 비슷하지만 華靡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안 된다. 敬虔性으로 보아서는 銘과 통하지만 敎訓의인 세계와는 다르다. 美德을 찬양하여 修辭를 펴고 汪洋한 모범을 확립하면서도 工緻한 趣意는 心情的 움직임에 따라 변화해 간다. 대체로 底意는 이와 같은 것이다¹⁴⁾

위의 인용문에서 ‘송’의 예술적인 미의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송 즉 악장은

14) 『文心雕龍』, 「頌讚」, “原夫頌 惟典雅 辭必淸鑠 敷寫似賦 而不入華侈之區 敬慎如銘 而異乎規戒之域 揄揚以發藻 汪洋以樹義 惟纖曲巧致與情而變 其大體所底如斯而已.”

그 형식이 고전적인 정통성을 바탕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정결하고 청정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고전적인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악장은 신을 위한 음악적인 송영이며, 그 내용의 핵심적인 사유방식은 사실성과 경건성에 있다. 그러나 賦의 특성인 直抒其情, 직접 사물을 서술하여 그 정절을 펼쳐 서술하며 정과 뜻을 풀어내는 것은 송의 성격과 유사하지만 사실적이면서도 부의 사실성처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아니다. 송의 문체는 그 사실을 펼쳐는 직설적인 성격이 강한데 「친사문묘송」도 성종의 위업을 진술하는 직설적인 표현이 대부분이고 화려함을 취하지는 않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 송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된다. 송의 문체는 銘의 문체처럼 程事較功 考實定名 위주로 강조되는 세계와는 유사하지만 그 경건성을 강조하는 것에서는 다르다. 악장은 미덕을 찬양하여 수식하기도 하고, 그 뛰어난 영웅적인 행위를 강조하여 교훈적인 성격을 드리우기도 하지만 그 영웅서사시적인 수시는 공교롭고 정치하여 심정의 음임에 따라 감정이 변화해 간다. 악장, 즉 송은 일반적인 시가와는 그 미의식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親祀文廟頌」¹⁵⁾은 성종 8년 가을에 임금이 성균관 문묘의 추계 釋奠에 참가하여 친히 문묘에 제사하는 성대한 행사를 작자가 직접 목도하고 감동하여 지은 작품이며, 정유년 8월 6일 남원군으로서 올린 것이다. 訥齋의 「親祀文廟頌」은 그 형식이 「頌」 즉 樂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親祀文廟頌」은 ‘皇聖’, ‘廟食’, ‘垂憲’, ‘親祀’, ‘作人’, ‘大射’, ‘賜宴’, ‘永保’의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장은 4언 2 절의 형태로 8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개는 「친사문묘송」을 창작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성종이 적전을 경작하고 하늘의 마음을 잘 받들어서 여러 해를 두고 풍년이 드는 복을 얻게 했으며, 금년 봄에는 또 처음으로 누에 기르는 예식을 거행하여 백성들의 입고 먹는 근본을 소중히 했다. 그러나 백성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였어도 예의와 충효가 배부르고 따뜻한 것보다도 좋지 않다. 문묘는 예약과 교화가 생겨나는 곳이다. 그리고 또 몸소 大射禮를 거행했으니 大射禮는 泮宮에서 獻馘함으로 文과 武를 하나로 만드는데 길이 되며 會禮宴을 거행하고 泮宮에서 술을 마심으로 임금과 신하가

15) 『訥齋集』, 續編, 卷2, 「雜著」, 「親祀文廟頌」.

한 몸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성종의 이번 거사는 예악과 문무와 군신과 상하의 도리가 갖추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고려의 오백년 역사책에서도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성대한 행사를 눈으로 보고서도 감히 말이 없이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짚을 올리고 이마를 조아리며 송을 지어 바칩니다.¹⁶⁾

여기에서 놀재는 송을 지어 바친다고 했다. 왜 시를 지어 바친다고 하지 않고 ‘송’을 지어 바친다고 했을까? 그것은 악장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묘는 예악과 교화가 생겨나는 근원이다. 성종은 직접 문묘에 제사하여 유풍의 진작에 힘썼다. 성종은 또 몸소 적전을 행하고, 누에를 치는 의식을 행하여, 백성에게 보이며 농사를 권장하여 먼저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놀재는 성종의 성스러운 자질을 찬양하고 그 바탕 위에 예의와 충효를 교육하는, 이른바 공자의 ‘先富後教’의 예악과 교화를 행하여 성군의 자질을 보였다. 성종의 친사문묘는 예악과 문무와 상하의 도리를 드러내기 위한 거사였으며, 訥齋의 「親祀文廟頌」은 이런 의도에서 지어 졌다. 고려 오백년 역사에서도 일찍이 보지 못한 거대한 친사문묘의 행사에 대한 자긍심의 표출이었다. 梁誠之는 「風俗學校十二事」라는 상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전하께서는 삼전을 봉양하고 원릉을 삼가 배알하시니 백성들이 우러러 보고 감화됨이 바람이 움직이면 풀이 눕는 것처럼 합니다. 도성의 사녀들이 사시로 자기들 조상의 무덤에 성묘하게 되어 옷깃이 장막을 이루고 어깨가 서로 비벼지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또 문묘를 禮謁하시고 儒風을 진작시키니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교사에 다 수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닙니다. 제왕의 한 몸은 만민이 우러러보며 사망에서 본받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위를 본받아 아래에 행하게 되면 그 功效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¹⁷⁾

16) 『訥齋集』卷5, 「補遺」, 「親祀文廟頌并書」. “臣竊惟 天生司牧 任兼君師 我殿下 既親耕籍田 克享天心 以屢獲豐年之祥 今年春 又肇舉親蠶之禮 所以重民衣食之所自也 然使民之飽煖之爲可重 而不知禮義忠孝有甚於飽煖 而增不教導之 則是 又未可也 於是 親祀先聖于文廟 文廟禮樂教化之所自出也 又親行大射禮 即在泮獻誠 以文武爲一道也 行會禮宴 即在泮飲酒 以君臣爲一體也 殿下此舉 禮樂文武 君臣上下道 無不備具 高麗五百年史策 所未嘗見也 臣職添史局 又兼學官 目都盛事 不敢嘿嘿 敢拜手稽首獻頌.”

親祀文廟은 선비들을 높이고 도를 중하게 여기는 것으로써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이루게 하려는 뜻이 극진히 담겨있었다. 성종의 교화에 감화된 백성들은 마치 바람이 불면 풀이 눕는 것처럼, 親祀文廟의 儒風에 대한 진작이 성대하게 드러났음을 강조하고 있다. 訥齋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군의 이상 정치를 강조하였다. 「親祀文廟頌」은 놀재의 경세적인 의지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위대한 작품이다.

頌의 문체는 기본적으로 치세지음에 속한다. 잘 다스려지는 시대의 음악은 편안하면서도 즐거우니 그 정치가 화평하기 때문이며 어지러운 세상의 음악은 원망하면서도 노여워하니 그 정치가 어긋나 있기 때문이며 망한 나라의 음악은 슬프고도 음울하니 그 백성이 곤궁하기 때문이다. 음악의 이치는 정치와 통한다.¹⁸⁾

예악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다스림에 나아가는 선비의 이상실현은 실용적이고 경세적인 것이었다. 訥齋는 어떻게 하면 조선을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느냐는 수성의 사명감으로 관료생활을 한 것 같다. 訥齋의 이 상소는 「親祀文廟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송’의 실용성이 입증된 교화와 보필을 위한 신하의 충성이었다.

놀재는 “성대한 행사를 눈으로 보고서도 감히 말이 없이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절을 올리고 이마를 조아리며 송을 지어 바친다”고 했다. 감동되어 읊지 않을 수 없어서 읊는 것은 진정한 문학이다. 歌頌과 讚美는 송의 핵심이다 이것은 놀재의 악장이 가지는 미적 장치의 근원이며 작품 구상의 신선한 동기이다.

於皇先聖	性稟生知	아아 공자시여 / 성품은 生而知
經天緯地	文不在茲	경천위지 하실 운명 / 이 분의 문장이네
金聲玉振	集厥大成	금성옥진 예악문물 / 집대성을 이루시니
損益四代	表章六經	사대를 관찰하여 / 육경에 밝히셨네
賢於堯舜	日月共明	요순보다 어지시고 / 일월처럼 밝으시네
麟出於郊	鳳不鳴岐	기린이 나타나고 / 봉황이 울어대니

17) 『訥齋集』, 「風俗學校十二事」. “又今殿下 效奉三殿 祇謁園陵 觀瞻感化 風動草偃 都人士女 四時上塚 衽成帷 而肩相磨矣 近又禮謁文廟 振起儒風 士類雲集 庠舍殆不能容 是無他 帝王一身 萬民之所瞻仰 四方之所則 效上行下 效不期然而然矣.”

18) 『禮記』, 「樂記」. “治世之音 安以樂 其政和 亂世之音 怨以怒 其政乖 亡國之音 哀以思 其民困 聲音之道 與政通矣.”

吾其東周 欲居九夷 아 우리 동주인 / 구이에 살고파라
四海東仰 百王攸師 온 세상이 우러르니 / 백왕이 스승이라

<皇聖一章 章八句> 19)

「친사문묘송」 서문에 해당하는 ‘皇聖章’은 문묘에 배향된 공자를 서술한 것이다. 여기에서 공자를 서두에 내세워 읊은 것은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의 정치상황과 통한다. 성인의 다스림을 펴려면 유교의 종주인 공자의 성스러운 학문을 본받아야 하고, 공자를 제사지내며 공자의 덕을 기리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조선의 운명을 걸고 경천위지할 목표는 바로 공자의 문장이다. 이것을 본받아 예악 형정이 집대성 되고 덕치의 성스러운 치도가 유교의 경전인 육경에 모두 밝혀져 있다고 하고 있다. 요순보다 어지시고 일월처럼 밝으신 분은 공자이며 기린과 봉황이 성인이 이 땅에 나오심을 증명하고 있다. 공자도 살고 싶어 했던 구이를 강조하여 구이가 우리 조선임을 드러내고 있다. 온 세상이 우리 동방 즉 조선을 우러르니 이는 모든 나라가 본받고 싶어 하는 성인의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서문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공순히 생각하오니 우리의 주상께서는 왕위에 오르신 삼년 뒤인 임진년 봄 정월에 공순히 조묘를 배알하고 4년 가을에는 또 친히 사직에 제사 하셨으며 금년 가을 7월 17일 壬午에 이르러서는 예조에 전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임금 된 자가 만민을 가르치는 것은 오직 선성의 가르침에 힘입은 것이다. 내가 친히 석전을 거행하고자 하니 경(卿) 등은 각기 마음을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소 신료들은 여러 가지 일에 분주 하였습니까”²⁰⁾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을 수용하여 우아하고 전아한 송의 문체로 다듬은 것이다. 이 땅에서 일어난 사실을 시로 정제하여 음악으로 연주하고 무용을 곁하여 하늘에게 알린다. 악장은 인간과 신과의 교감이다

皇降生民 聖作君師 황천이 이 땅에 백성을 내시고 /
성인으로 임금의 사표를 삼으셨네
不有素王 孰開我知 공자가 아니시면 / 누가 지혜 열어주나

19) 『訥齋集』, 續編, 卷2, 「雜著」, 「親祀文廟頌」.

20) 『訥齋集』, 續編, 卷2, 「雜著」, 「親祀文廟頌 序」.

茫茫九土 無人不學 망망한 이 땅에 / 배움 없는 사람 없고
 萬世南面 終天血食 만세토록 남면하여 / 만세토록 추앙 받네
 漠以大牢 風俗四方 대뢰로 향사하니 / 풍속은 사방까지
 唐被龍袞 文明爲邦 당피에 용곤 하니 / 밝은 나라 되었네
 顧惟大東 仁賢所化 돌아보니 우리 대동 / 인현에 감화되어
 春秋不懈 庶幾夙夜 춘추로 대사례 / 어김없이 올리네

<廟食一章 章八句> 21)

제2장에 해당하는 ‘廟食’章은 성종이 문묘에 배향하는 성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하늘이 이 땅에 성스러운 백성을 내시고 성인이 임금과 스승을 조선 땅에 나오게 하셨다. 공자의 사상이 아니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까? 조선의 방방곡곡에 공자의 학문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앞 시대에 불교를 숭상한 터전에서 조선건국과 함께 단행한 유교혁명은 불교를 후면에 숨게 했다. 고을마다 공자를 모시는 향교가 들어서고 조선은 온통 유교국가의 메아리로 넘쳤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는 공자의 문묘에 배향하며 성인의 다스림을 다짐하는 성군 성종의 친사문묘는 이 땅에 유풍을 진작하는 계기가 된다. 대뢰로 예를 표하여 향사를 지내니 풍속이 사방에 퍼져 나간다. 곤룡포를 입고 문묘에 배향하는 것은 곧 성인의 덕치를 이루는 것이다. 대동 조선은 온 나라가 어진 현인들에 감화되어 봄 가을로 대사례를 올리며 교화를 펼친다. 그 서문에는 “팔월 초 3일 상정(上丁)에 이르러 드디어 친히 선성을 대성전에서 향사하였습니다. 이날 날씨는 청명하고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 되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실에 바탕을 둔 서사양상은 이 노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언으로 균등하게 우미한 언어로 정제하여 창작한 송의 언어에서 균제미와 엄숙미와 장중함이 창출되고 있다.

於皇太祖 應運開國 아 우리 태조시여 / 천운으로 개국하사
 首創文廟 享祀不忒 문묘를 세우시어 / 향사를 이어왔네
 太宗承緒 惟勤繼述 태종께서 계승하사 / 부지런히 힘쓰셨고
 世廟踐祚 有光制作 세종께서 실천하사 / 제례작악 빛나시네
 逮我世祖 升堂酌獻 우리 세조 이으시어 / 문묘에 제사하사

21) 『訥齋集』, 續編, 卷2. 「雜著」, 「親祀文廟頌」.

一邦咸熙 萬世垂憲 온 나라가 기뻐하고 / 만대에 드리우네
 文不喪天 道未墮地 문화는 번성하고 / 도덕은 융성하니
 聖子神孫 益闡文治 신성한 자손이여 / 문치 더욱 펼치소서

<垂憲一章 章八句> 22)

이 장은 태조가 유교를 국시로 삼고 조선을 개국한 이래로 성종에 이르기까지 문묘가 계승되어온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太祖가 朝鮮을 건국하면서부터 文廟를 설치하고 유교를 국시로 내 건 덕치의 이상을 피력하고 있다. 天運에 의해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문묘가 조선의 건국과 동시에 설립된 것은 유교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이런 정신을 太宗이 계승하여 발전 시켰고 세종은 制禮作樂으로 제도를 정비하였다. 왕위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세조가 여기에 제사를 올리는 뜻을 상기하여 표현하고 있다. 왕위의 정통성과 유교경전에 입각한 이상적인 文治를 이루어 도덕을 숭상하는 국가를 건설하려는 뜻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이런 정신이 成宗에서부터 후대로 이어져서 조선이 영원하게 되리니, 왕이시여 더욱 文治를 펼치시라는 위대한 뜻이 담겨있다. 이로써 成宗은 文治를 이루었으며 訥齋는 이 사실과 함께 조선의 문화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했다. 성종의 위대한 행보를 민간악부처럼 비속어나 은어가 없는 청정하고 우아한 시어로 가다듬어 정제하는 예술화 과정에서 우아미가 드러나고 있다.

明明我后 奄有東方 밝으신 우리 임금 / 동방에 나시었네
 祇見廟社 以享以將 문묘에 헌신하여 / 정성을 다하시네
 迺親田蠶 重民衣食 농사짓고 누에쳐서 / 백성 의식 중하시니
 飽煖無教 禽獸奚擇 선부후육 아니하면 / 금수와 마찬가지로
 導以禮義 學校爲盛 예의로 인도하여 / 학교를 일으키니
 茲詣澤宮 親祀先聖 문묘에 나가시어 / 성인께 제사 하네
 酒醴既豐 粢盛亦潔 단술도 넉넉하고 / 제수도 정결하니
 諒余昭事 庶幾來格 믿으시고 밝히소서 / 부디 흠향 하소서

<親祀一章 章八句> 23)

訥齋는 성종을 몸소 농사를 짓고, 누에를 치고, 백성을 중히 여기는 성군으로

22) 『訥齋集』, 續編, 卷2, 「雜著」, 「親祀文廟頌」.

23) 『訥齋集』, 續編, 卷2, 「雜著」, 「親祀文廟頌」.

표현하고 있다. ‘先富後教’의 공자 말대로 ‘먼저 의식을 족하게 하고 나서도 가르치지 않으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리오’라는 論語의 구절을 인용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놀개는 「친사문묘송 서문」에서 “백성으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고 따듯하게 입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예의와 충효가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도 따듯하게 입는 것보다도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알도록 가르쳐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한 옳지 못합니다. 이에 친히 先聖을 문묘에서 향사하였습니다. 문묘는 예악과 교화가 거기에서 나오는 곳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악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사의 양상을 볼 수 있다. 그 교육을 위해서는 바로 성균관의 오늘 親祀文廟는 백성을 예의로 인도하고, 많이 가르쳐서 바른길로 인도하는 성군의 조짐이다. 위로는 임금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백성에게 혜택을 돌리는 관료의 참모습이 들어있는 治世之音이다. 유교사회로의 개혁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가는 당대사회에 성종의 親祀文廟는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 각 郡縣에는 향교가 설치되었고, 유교는 향교의 정신적인 지주였으며, 예의 법도가 바로 문묘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성군의 역량을 갖추고 文治를 중시하고 유교의 이상적인 통치자로서의 맹서를 문묘에서 행한다. 정성을 다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성군의 다짐을 엿볼 수 있다. 유교경전에 바탕을 둔 시어들의 선택에서 전아의 미의식을 도출할 수 있다.

迺御明堂 乃服袞衣 명륜당에 이르시어 / 곤룡포를 입으시네
 濟濟青衿 肅肅丹墀 아름다운 유생들 / 엄숙한 사당 안뜰
 迺命相臣 迺試諸儒 재상에게 명하시어 / 유생에게 과거보이니
 臣拜稽首 寔稟睿謨 신하는 절하며 / 왕명을 받드네
 擇焉惟精 何不作人 정밀하게 가려내니 / 인재 어이 안 뽑히리
 人爭聚首 願爲忠臣 머리를 맞대고 / 충신 되기 소원 하네
 臨軒放榜 日下五色 헌청에 발표하니 / 오색이 눈부시다
 賜花與蓋 自天呵喝 어사화에 일산이라 / 하늘도 축하 하네

<作人一章 章八句> 24)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잘 나타나 있는 作人장은 성종이 문묘에서 親祀文廟를

24) 『訥齋集』, 續編, 卷2, 「雜著」, 「親祀文廟頌」.

마치고 명륜당에 거동하여 알성시를 베푸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 서문에는 “이날 이른 아침에 임금은 명륜당에 납시어 여러 성균 유생들의 사배를 받으시니 유생의 수는 무려 천 사백 명이었습니다. 臣 子雲과 臣 誠(양성자) 臣 金紐에게 대독관을 명하시고 신 垠과 신 公弼에게는 대독관을 명하시었습니다. 이들이 친히 임금의 지시를 받아서 아래로 여러 유생들을 시험 하였습니다”²⁵⁾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 서사의 양상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임금이 성균관에 거동 하면 문묘를 배알하고 나서 명륜당에 들러 비로소 곤룡포를 입는다. 명륜당에 이르러 유생들에게 문묘를 배알한 기념으로 과거를 베푸는데 이것이 바로 알성시이다. 이 장에서는 알성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데 시험을 보는 동안 대사례가 행해진다. 양성지의 서문에는 “날이 晡時가 되었을 때 臣 弼相, 臣 居正, 臣 碩圭, 臣 士洪, 臣 比長에게 명령하시어 가서 과시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子雲 등이 응시자 네 사람의 답안지를 가져다 올리니 임금께서 權建으로 제 일인을 삼고 아울러 나머지 세 사람에게도 급제를 하사하셨으며, 즉시 吏曹에 명하여 그들에게 사헌부 감찰을 제수하게 하였습니다. 헌청에서 발표하고 각각 內廐의 鞍馬를 하사하시니, 巡軍에서는 광대를 바치고, 都官은 천동을 갖추고, 禮賓寺에서는 造花를 올리고, 乘輿司에서는 日傘을 올렸습니다. 급제한 네 사람이 모두 恩賜를 받고 九街를 遊街하기 위하여 명령을 받들고나가니 하사한 일산은 바람에 펄럭이고 天花는 햇빛에 광채가 났습니다. 呵喝의 소리가 마을과 거리를 진동시키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안사람이나 부자사이에 서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어찌 한갓 國子나 四門의 유생들이 이왕의 학업에 게을렀던 것을 한탄하여 더욱 그 장래의 외고 익힘을 힘쓰게 될 뿐이겠습니까? 모든 陪從한 臣僚와 시위하는 군사들이 부러워하고 감탄하여 자손을 훈계하려고 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감격하여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으로써 백 사람을 권장하여 인재를 만들고, 교화의 근원을 밝게 닦음이 지극하고 극진한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法駕가 궁궐로 돌아가시니 京都 안의 士女들이 길을 메우고 울먹이며 우러러보았습니다. 팔방으로 소문이 전해지고, 만세의 미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²⁶⁾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訥齋의 경세적인 문학관이 잘 드러

25) 『訥齋集』, 續編, 卷2, 「雜著」, 「親祀文廟頌 序」.

26) 『訥齋集』, 「親祀文廟頌并序」. “四人者 俱受 恩賜 擬遊九街 承命以出 賜蓋翻風 天花耀日 呵喝之聲

난다. 訥齋의 시대정신 표출이자, 성종의 시대에 親祀文廟가 창출해낸 경제적인 의도는 임금을 성군으로 만들고, 신하를 충신으로 만들며, 백성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화시키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 위대한 성사를 직접목도하고 감동하여 직서하여 읊기는 관각의 문예를 어찌 일반 시가와 비교하여 논할 수가 있겠는가? 악장은 위대한 문학성을 가지고 있다.

洒出東門 乃御射壇	동문으로 나오시어 / 대사단에 납시었네
熊侯既張 龍旗安安	과녁이 내 걸리고 / 깃발이 펄럭이네
洒於彤弓 四矢如破	붉은 색 활을 쏘니 / 네 화살 적중하네
聖人乃中 侍臣攸賀	성상도 맞추시자 / 신하들이 축하하고
將相陪射 衆耦其爭	장상들도 활을 쏘며 / 짝을 이뤄 다투네
或受上賞 或飲巨觥	더러는 상을 받고 / 더러는 별주 받고
匪怒伊教 載欣載悅	화날 리 있겠는가 / 즐겁기만 한 것을
一人有慶 四方來服	우리 임금 경사에 / 온 누리가 축하하네

<大射一章 章八句> 27)

大射禮의 한 장면이다. 성균관 동문으로 나와 大射壇으로 들어와서 백관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만수무강의 축복을 올리게 한 후에 곰 가죽으로 만든 과녁을 90보 거리에 세우고, 친히 활과 화살을 쏘아서 大射禮를 올렸다. 그 서문에는 이 상황을 기록하여 “드디어 대사단에 납시어 백관에게 賜宴을 하셨습니다. 임금의 만수를 비는 술잔을 올리고 곰의 가죽으로 갖을 장식한 과녁을 구십 보 밖에 세워 놓았습니다. 친히 활과 활을 가지시고 친히 활 쏘는 예를 거행하였습니다. 宗宰로부터 백관에 이르기까지 우러러보고 감탄하면서 성대한 일을 얻어 보게 된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기었습니다. 또 모시고 쏘는 여러 신하들도 열 사람씩 백 사람씩 짝을 지어 精白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명령을 받들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긴 자는 상 주심을 받고 이기지 못한 자는 兕觥의 별주를 마시었습니다.

喧動里閭 如自天降 其家人父子 莫相知也 是豈徒國子 四門儒生 俱恨已往之怠於業 而益權其將來之誦習也 凡陪從臣僚 侍衛軍士 莫不歆羨慕 欲訓戒子孫 至有爲之掩泣者 斯以一勸百 作成人才 修明教化之源 至矣盡矣.”

27) 『訥齋集』, 續編, 卷2, 「雜著」, 「親祀文廟頌」.

읍하고 사양하며 오르고 내리니 그 다투는 것이 참으로 군자다웠습니다”²⁸⁾라고 양성지는 기록 하였다. 이렇게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진 서사 악장을 詩賦와 비교하여 그 문학성이 떨어진다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직접 목도한 사실을 타자화하여 공적으로 대중화하는 외연과 내포의 수사 기교에는 그 문예미학이 드러나고 있다. 이상적인 유교사회를 건설하려는 중심에서 親祀文廟의 행사는 의미가 크다. 梁誠之는 이 성대한 행사를 찬송하여 樂章을 지었다. 상과 별주의 축제 속에 학문을 권장하고 유생들을 독려하는 임금의 자세에서 유교경전에 근거한 경세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신하는 충성을 맹세하고 임금은 신하에게 성군이 될 것을 다짐하는 유교적인 이상국가의 건설에 기초가 되는 것이 親祀文廟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품격은 典雅이다. 음악으로 정치를 보좌하고 시로써 교화하려는 樂教와 詩教의 정신이 동시에 드러난다.

日表穆穆	天語洋洋	임금 위엄 아름답고 / 말씀은 선하도다
轅門萬計	咸仰耿光	궁궐의 온갖 계획 / 경광을 우러르고
于以肆筵	于以賜設	자리를 마련하고 / 잔치를 여시도다
仙樂交奏	武功文德	선악이 연주되니 / 무공과 문덕이라
旨酒又多	嘉餼肥腴	좋은 술 그득하고 / 안주도 푸짐하네
拜獻萬壽	萬壽無極	만수무강 기원하는 / 만수 술잔 끝이 없네
乾坤清寧	禮儀罔缺	건곤은 편안하고 / 예의는 온전하니
既醉太平	於倫於樂	태평성대 누리시니 / 상하 질서 화락하네

<賜宴一章 章八句> 29)

이 장은 친사문묘의 행사 중에 잔치를 묘사한 것이다. 군신상하가 함께 즐기는 친사문묘 행사의 피날레를 묘사한 것이다. 잔치의 서두에 인사말을 하시는 성종 임금의 위엄스런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우아한 미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궁궐에서 나오는 모든 덕치는 경광을 발하고 자리는 즐거움의 극치에 이르러 잔치를

28) 『訥齋集』卷5, 「親祀文廟頌并序」. “迺出於大射壇 賜百官宴 進萬壽觴 張熊侯于九十步外 親於弓矢 親行射禮 自宗宰 以至于百官 瞻仰咨嗟 以獲觀盛事 爲大幸也 又侍射諸臣 十百爲耦 莫不精白一心 以承休命 其勝者受賞賜 不勝者罰兕觥 揖讓升降 其爭也眞君子矣.”

29) 『訥齋集』, 續編, 卷2, 「雜著」, 「親祀文廟頌」.

열었다. 신선의 음악이 연주된다는 것에서 연행가사의 성격의 음악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정대업,’ ‘보태평’ 같은 文舞와 武舞가 공연되어 무공과 문덕이 올려 퍼지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술과 푸짐한 안주로 임금께 만수무강을 비는 술잔이 끝없이 올라가고 군신 간에 주고받는 술잔에 덕치는 이루어지고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조선 땅은 외세의 침입이나 흉년도 없어 하늘도 편안하고 땅도 편안하다. 군신 상하가 화락하는 조선의 덕치는 성인의 교화에 감화되고 있으며, 崇敬과 讚美로 일관되고 있다. 이 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가송과 찬미의 미의식은 시어가 강건하고 우미하며 속된 기가 없어 청징하여 호건과 전아이다.

惟我聖上	身致太平	아아 우리임금 / 몸소 태평을 이루시니
尊師重道	大禮以成	스승을 높이고 / 학문을 존중하네
于以取士	于以觀德	선비를 모아서 / 덕성을 살피시어
一張一弛	能事乃畢	일장일이 하시어 / 능사를 마치셨네
在泮射侯	文武爲一	반궁에서 활을 쏘니 / 문과 무가 하나 된다.
臨雍燕賜	君臣相悅	학궁에서 잔치하니 / 군신이 즐겁다
愼終如始	千載一日	시종일관 삼가며 / 천년을 하루같이
於萬斯年	永保東國	임금 만세 만만세 / 우리나라 만만세

<永保一章 章八句> 30)

이 장은 문묘행사의 위대한 업적을 되돌아보며 조선의 永遠 昌盛을 기원하며 결말을 짓는 장이다. ‘永保’ 장은 마치 지금 우리 애국가의 마지막 구절 ‘길이 보전 하세’와 그 의미가 통하는 장이다. 국가의 태평성대와 임금의 만세를 기원하는 장이다. 성종 임금 태평성세를 다스리시니 스승을 높이고 학문을 존중하는 덕치를 베푸신다. 선비들 모아서 과거 시험을 보시고 인재를 등용하여 덕치를 다짐한다. 訥齋는 『예기』의 말을 이용하여 ‘一張一弛’라고 하였다³¹⁾ 이것은 활시위 줄을 오래 동안 당겨 늦추지 않게 되면 끊어지고 또 오래 동안 늦추기만 하고 당기지 않으면 형체가 변하고 만다. 백성들도 오래도록 노고만 시키고 쉬게 하지 않으면 그 힘이 피로에 지치게 되고 반대로 놀게만 하고 일을 시키지 않으면 그 뜻이 헤이해

30) 『訥齋集』, 續編, 卷2, 「雜著」, 「親祀文廟頌」.

31) 『禮記』, 「잡편 하」, 53, 참조.

진다는 것을 활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선비들에 대한 성종의 위무는 무사히 끝이 나고 반궁에서 활을 쏘니 문과 무가 하나 된다고 하고 있다. 문관 중심의 고질적 병폐에서 벗어나 문관과 무관의 평등한 대우는 조정을 편안하게 하고 군신 간에 활쏘기를 하며 반궁에서 잔치를 벌이니 태평성세에 성군을 만난 신하들의 만세 소리 드높다.

上下 화합과 國泰民安을 강조하여 덕치를 제고하고 있다. 시종일관 한 결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태평성세의 덕치여 조선과 함께 영원하여라! 성인의 나라 조선이 길이 보전하기를 빌고 있다. 조선에 대한 自豪感이 노래 전체에 가득 차 있다

성종의 친사문묘는 당시의 風教를 의식하고 있었다. 親祀文廟는 공자를 숭상하여 나라의 예속을 바르게 하려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글 하는 선비로 하여금 經傳을 공부하고 儒學의 도에 입각하여 학문을 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교적인 이상 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憂國의식이나 愛民의식은 기본적으로 관료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訥齋의 漢文樂章 속에는 민족의식의 고양과 진취적인 기상이 드러나 있다. 참신한 관료의식을 가진 일련의 문인들은 나라의 공식적인 글과 목적성을 지닌 관각문학을 지움에 귀족 관료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기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親祀文廟頌」은 樂章형식이며 성격상으로는 역사적 사실을 直敘한 頌祝형식이다. 서술의 초점이 음악성이나 주정적인 정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친사문묘의 과정에 대한 사실적이고 서사적인 통일성이 있는 서술로 교술 목적시의 문학적 결함을 다소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訥齋의 악장은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세계의 이상을 지향하고 있는 치세의 음이라고 할만하다. 서사적인 감동이 있으며, 교육의식, 애민의식, 민족의식 등 건강한 정신이 들어있는 민족문학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친사문묘송」은 놀재가 詩樂舞의 종합예술로 공연될 것을 의식하고 창작한 것이다. 놀재가 성종의 친사문묘를 직접 목도하고 그 행위 하나하나를 일일이 묘사하여 사언의 운율을 고수하며 송의 문체로 창작했으며 전체를 八章으로 나누고 각 장은 8구로 균등하게 구성 했다. 歌頌을 의식한 四言으로 정제하여 표현한 수사기 교에 均제미가 창출된다. 이것은 내용으로 보아 우선 宗廟祭禮樂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四言의 운율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에서 歌頌을 의

식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시경』의 頌 대부분이 사언 악장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와 유사한 구조로 지어진 「친사문묘송」은 음악으로 연주될 것을 의식하며 지었다는 타당성이 확보된다.

또 「친사문묘송」은 舞를 의식하며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장을 8장으로 나누는 것에서 六佾舞나 八佾舞 등의 佾舞의 형식으로 공연될 것을 의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친사문묘송」에 적합한 춤은 어떤 것이었을까? 文舞와 武舞로 구분해 볼 때에 그 성격상 문무에 속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보태평은 문무이고 정대업은 무무인 점에서 보태평이 공연될 것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 직접 목도한 역사적 사실을 타자화 하여 다듬어내는 의경과 공적으로 작품화하는 언어의 외연과 내포의 수사 기교에는 「친사문묘송」의 서사양상과 그 문예미학이 드러나고 있다.

訥齋의 악장은 「平朔方頌」과 「親祀文廟頌」 두 편이다. 하나는 文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武에 대한 것이다. 訥齋는 樂舞에 대한 견해도 서술한 적이 있는데 文舞인 「保太平圖」와 武舞인 「定大業圖」가 그것이다. 혹 이 노래들의 가사예다 「납씨가」나 「정동방곡」을 읊던 음조로 노래하고 여기에 保太平이나 定大業같은 춤을 추려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근거가 訥齋集에는 들어있다.³²⁾ 『놀재집』에는 「新制雅樂譜圖」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악장을 바탕으로 공연되는 춤에 대한 두 개의 그림인데 하나는 ‘보태평도’이고 다른 하나는 ‘정대업도’이다. 이것은 詩樂舞의 종합예술로서 악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다. 놀재 이전부터 내려오던 文舞와 武舞의 舞圖를 개선하여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 그림의 제목을 풀이하면 ‘새로 만든 아악의 악보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인데 정대업도와 보태평도의 춤에 대한 그림인 점에서 詩樂舞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놀재집』에는 이와 같은 다음과 같은 글도 있다. 세조 5년 사월에 세조가 梁誠之에게 교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종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뛰어난 어른으로서 모든 樂章과 무용을 제정하시었으나 아직 쓰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쓰려고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버리게 될 것이니 어찌 아깝지 않겠는가? 이제부터라도 정대업·보태평과 발상·봉래의 같은 新樂을 배우고 익히어서 舊樂은 모두 버리고 그 인물과 현가의 수

32) 『訥齋集』卷4, 「遺事」, 「新制雅樂譜圖」 참조

와 익혀야할 절목을 속히 의논하여 올리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梁誠之와 成任으로 樂學都監提調를 삼으시어 新樂을 가르치고 연습시키도록 하시었다.³³⁾

세종 당시에 지어졌던 우리의 音樂과 舞蹈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우리 음악사는 물론이고 조선전기 詩歌史에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세종대의 制禮作樂 중에 가장 뛰어나고 조선 건국과 함께 지어졌던 樂章들이 집대성 된 용비어천가도 세조 당대까지는 실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세조는 이 예악과 악무의 실용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버리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舊樂을 버리고 新樂을 배우고 익히어서 연주하도록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과 악기와 필요한 도구들을 모두 조사하여 올리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舊樂은 고려조에 유행했던 일련의 악들로 조선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 같고, 新樂은 이와 대칭 되는 새로운 조선의 정신이 담긴 일련의 악장이 될 것 같다. 梁誠之와 成任에게 樂學都監提調를 명하고 新樂을 가르치고 연습시키도록 한 것으로 보아 그의 樂章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訥齋의 樂章은 이와 같은 영향 하에 창작되었다 그의 樂章은 가사와 음악과 무용을 의식하면서 지어졌으며, 詩·樂·舞의 삼위일체가 되는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乖崖 金守溫은 「남원군가집서」에서 놀재의 「친사문묘송」을 비롯한 그의 詩文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평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詩賦는 豪健하고 記와 誦은 典雅하다. 무릇 사람이 고금의 역사에 해박하면 기운은 웅장하고 언어는 強健하며, 그 본 것이 이미 넓다면 그 글도 또한 전아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에 공이 「親祀文廟頌」을 지어 올려서 전하께서 훌륭하다는 칭찬을 그치지 않으셨고 「백운동기」는 사람에서 누구나 칭송하고 있다. 다른 글도 이런 것이 많이 있다. 우리 동방에서 문장의 巨公으로는 목은 이색과 도은 이승인을 숭상하여 마지않는다. 그들과 같이 일가를 이루어

33) 『訥齋集』卷6, 「遺事」, “世宗 以天縱聖智 製諸樂舞 未及用之 此時不學 後張廢棄 豈不惜哉 自今肄定大業 保太平發祥鳳來儀等 新樂 而盡廢舊樂 其人物軒架之數 肄習節目 速議以啓 遂以梁誠之 成任 爲樂學都監提調 教習新樂”

서 한 시대를 올리게 한 자가 한 사람이 아니겠지만 공의 문장도 어찌 그들의 문장과 함께 할 수 없겠는가. 다른 날에 태사썩(사마참)가 시를 뽑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에는 이일이 반드시 증명될 것이다.³⁴⁾

위의 인용문에서 乖崖는 訥齋의 시와 부에 대해서는 ‘豪健’하다고 평하였고 記와 誦(頌)에 대해서는 典雅하다고 평하여 후세에 길이 전할 문인으로 극찬했다. 乖崖는 놀재의 문예작품이 호건과 전아한 이유로 고금의 역사에 박통한 것과 그 글을 본 것이 넓은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괴애의 이 비평은 訥齋의 「親祀文廟頌」이 지어진 직후에 나온 비평이며, 성종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작품으로 「親祀文廟頌」을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서 「親祀文廟頌」이 당대에도 주목받던 유명한 작품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친사문묘송」은 그 가사 전반에 걸쳐 해박한 유교경전의 언어로 이루어 졌으며 그 언어들은 경건하고 절제되어 엄숙한 미의식을 창출하고 있다. 놀재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載道적인 문풍과 유교경전을 바탕으로 하는 성세적인 문풍에서 단순한 아담한정취만으로 전아의 문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孔子, 六經, 堯舜, 기린, 봉황, 金聲玉振, 大禮, 명륜당, 유생 등 유교 경전에서 창출된 시어들과 소재들에서 전아의 미의식이 드러나고 있으며, 명륜당에 친히 제사를 올리는 성종의 대성사의 제재에서도 전아의 미의식은 전제되어 있었다.

괴애가 지적한 호건의 미의식을 「친사문묘송」에서 탐색해 보면 “육경을 세상에 밝히시었네,” “요순보다 더 어지시고 일월같이 밝으시네,” “기린은 들에서 나오고 봉황은 기산에서 크게 운다오” 등의 시구에서 기운이 웅장하고 언어가 강건한 호건의 미의식을 느낄 수가 있다. ‘典雅’와 ‘豪健’의 미의식은 ‘亡國之音’이나 ‘亂世之音’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治世之音’ 속에서 발견되는 美意識이다. 놀재의 친사문묘송의 시어들은 관각의 문체로서 실용적이며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경계한 평담하며, 난삽한 글귀가 하나도 없는 평이한 문체이며 언어의 절제미를 의식한 문체여서 간결하다. 놀재의 이러한 문풍은 宋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宋대

34) 『訥齋集』, 「南原君家集序」. “詩賦則必豪健 其記誦又典雅 凡人博通古今則 氣且雄而語亦健矣 其所見既廣則 其爲文又不得不至於典雅矣 近日 公 親祀文廟頌 殿下嘉賞不已 白雲洞記 士林亦皆稱之 他多類此 吾東方文章鉅公 如牧隱陶隱不可尙已 他如成一家鳴一時者非一 公之文豈不可與之 并傳於後世乎 他日 太史氏 有採詩之事則 必於此徵之矣.”

의 문풍은 문학적 실용성과 효용성을 강조하여 헛된 공언을 반대하고 平淡 質朴한 예술풍격을 제창한 것³⁵⁾이었는데 놀개의 문장은 바로 ‘平淡質樸’의 풍격과 통하고 있다. 또 어렵고 괴벽한 문투를 반대하고 ‘平易暢達한 語言風格’을 제창한 송대의 詩文革新運動과 訥齋의 文風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점이 발견된다. 또 乖崖는 문장으로서만 일가를 이루게 한다면 목은이나 도은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고 했다. 목은과 도은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당대의 시대를 울릴만한 문장의 대가들은 많이 있지만 이 뒤를 이을 만한 문장의 대가로 訥齋를 꼽고 있다. 乖崖가 사마천을 등장시킨 것은 사마천의 역사가적인 안목을 들추어 문학이 시대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는 효용성으로 문장을 뽑는 기준으로 한다는 시각을 전제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조선전기의 악장연구가 공덕의 찬송에 아유와 구기가 들어 있는 찬양 일색의 주제로 한정되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訥齋의 「친사문묘송」은 성종이 직접 문묘에 제사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압축하고 정제하여 이루어낸 臣頌君功 작품으로 조선 건국 초기 찬양일색의 한문악장에 견주어 보면 진부한 시각에서 벗어나 사건의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작품의 통일성이 뛰어나 조선전기 악장문학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

성종의 친사문묘에 대한 성대한 儀式을 한문 악장의 형식을 통하여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형식을 고수하며 사건을 압축하고 상징화하는 기법의 성장은 조선전기 한문악장의 문학적 위상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이었다. 성종의 친사문묘의 행사를 직접 목도하고 그 사실을 악장으로 예술화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감각의 상상력이 결합된 문예미학의 보고로서 걸출한 작가가 아니면 창작하기 힘든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親祀文廟頌」의 敘事 樣相과 그 文藝 美學은 우리나라문학사에 소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친사문묘송」은 지금까지 그 가치가 조명된 적이 없는 위대한 하나의 문화유산이며 우리문학사에 우뚝한 한편의 위대한 악장이었다.

35) 王運熙·顧易生 主編, 『中國文學批評史』(中冊)(上海古籍出版社:1997), 5 쪽 “... 反對空言 重視比興 提倡以平淡質樸的藝術風格...”

IV. 결론

歌頌과 讚美의 문학, 「親祀文廟頌」은 다양한 미학을 지니고 있었다. 성종의 위대한 행보 친사문묘의 행위가 역사적인 서술로 묘사되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송의 문체에 입혀져서 우아하고 청정하며 호건하고 전아한 음조미로 탄생되는 언어의 정제와 균제미, 그리고 詩樂舞를 의식한 종합예술적인 성격의 예술화 과정에서 많은 미의식이 발견되었다. 「親祀文廟頌」의 구체적인 현실성과 역사적인 진실성은 작자의 세계관과 일치하고 있는 작품으로 조선전기 유교적인 신흥의 기분이 가미된 8장의 연장체로서 음악과 무용을 의식하여 만든 조선 수성기 악장의 백미이다.

「親祀文廟頌」은 성종 8년 가을에 임금이 성균관 문묘의 추계 釋奠에 참가하여 친히 문묘에 제사하는 성대한 행사를 작자가 직접 목도하고 감동하여 지은 작품이다. 그 서사양상과 문예미학의 고찰을 통해본 결과 「親祀文廟頌」의公演적 성격에서 시와 음악과 무용의 종합예술적인 성격이 발견되었다. 「친사문묘송」은 그 형식이 여러 가지 요인에 비추어 樂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직접 목도한 역사적 사실을 타자화 하여 다듬어내는 의경과 공적으로 작품화하는 언어의 외연과 내포의 수사 기교에는 「친사문묘송」의 서사양상과 그 문예미학이 드러나고 있다.

악장에 대한 비판과 개조의 노력은 새로운 악장을 태동시켰다. 조선의 송유역불 정책에 따라 고려조의 불교적인 성격의 악장은 연주되기가 곤란한 분위기였다. 고려조의 구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악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시대에 창작된 訥齋의 「親祀文廟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서사악장으로서 우리 민족문학사의 귀중한 자료이다. 「親祀文廟頌」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자의 위상을 드러내어 성인의 표상을 드러낸 ‘皇聖’장, 성종이 문묘에 배향하는 성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廟食’장 태조가 유교를 국시로 삼고 조선을 개국한 이래로 성종에 이르기까지 문묘가 계승되어온 과정을 노래한 ‘垂憲’장 성종이 성인의 자질로 친히 문묘에 배향하는 것을 묘사한 ‘親祀’장 성종이 문묘에서 親祀文廟를 마치고 명륜당에 거동하여 알성시를 베푸는 장면을 형상화한 ‘作人’장, 대사단에서 열리는 활쏘기 시합 즉 대사례를 형상화한 ‘大射’장, 군신상하가 화락하며 즐기는 잔치를 형상화한 ‘賜宴’장, 모든 행사를 뒤돌아보며 성인의 다스림과 태평성대의 만세를 길이 보전하자는 여운을 남기며 결말짓는 ‘永保’의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장은 4연 2절의 형태로 8연으로 배열되어 있다.

「親祀文廟頌」은 악장으로서 전아하고 호건한 미의식이 발견된다. 종묘제례악 같은 악무와 어우러진 송영을 감안할 때 우아미와 엄숙미가 있으며 정제미가 있다. 이것은 궁중에서 이루어진 궁정문학이며, 관각의 문학이다 「親祀文廟頌」에는 조선의 국시를 재확인 하는 유평진작의 실용적인 의도가 깔려있으며, 개성적인 것과 함께 사실에 입각하여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의 묘사나 구체적인 시간설정, 그리고 구성과 배열, 드러내려는 의도 등에서 서사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시간의 구체적인 흐름을 중시하고 사건을 8장의 연장체로 분장하여 형상화 해 나가는데서 악장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며 서사의 문학적인 흐름이 타 악장에 비하여 진일보된 악장이다. 「친사문묘송」은 음악과 무용 즉 노래와 춤을 겸한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갖추고 창작된 악장문학이다. 악장은 공식적인 행사에 연주되기 위해 창작된다. 이 성대한 행사가 악장의 형식에 입혀져 연주되어서 이 땅의 치자들에게 찬미와 경계를 드리운 유평진작의 의도를 지니고 있다.

한국 문학사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악장에 대한 조명은 그 작품의 문학성보다 작품주변에 대한 연구가 더욱 많은 것은 아닌가? 문학은 시대의 반영물이다. 악장을 아유가 포함된 찬양위주의 관각문학이라고 비하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악장 작품 속으로 직접 들어가 악장의 신성한 의미를 찾아내고 미학을 고구하는 연구풍토가 일어나야 하고, 詩樂舞의 종합예술차원에서 악장의 위상을 부각시키는 작품에 충실을 기하는 연구풍토가 일어나야 한다. 악장에 대한 연구는 조선건국기의 악장뿐만 아니라 조선 수성기 이후의 시간과 공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악장의 장르 규명과 함께 한문악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악장문학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전환되어야 한다.

「친사문묘송」은 지금까지 그 가치가 조명된 적이 없는 위대한 하나의 문화유산이며 우리문학사에 우뚝한 한편의 위대한 악장이었다.

참고문헌

禮記.

阮院, 『擘經室集』

吳納, 『文章辨體序說』

『通志二十略』. 鄭樵(撰), 王樹民(點校), 中華書局出版 1995.

梁誠之, 『訥齋集』. 韓國文集叢刊 9집.

金守溫, 『拭疣集』. 韓國文集叢刊 9집.

『국역 동문선』. 민족문화추진회 1982.

『국역 악학궤범 I·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67.

『增補文獻備考』. 서울: 韓國學振興院 1986.

劉鑑, 『文心雕龍』.

CD국역조선왕조실록 증보판 서울시스템주식회사 조선왕조실록CD-ROM 간행위원회 1995.

王運熙·顧易生 主編, 『中國文學批評史』. 中冊 上海古籍出版社 1997.

文一平, 『湖巖全集』. 서울: 三文社, 197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서울 지식산업사 1991.

조운제, 『조선시가가사강』. 서울: 동광당서점. 1939

崔珍源, 『증보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6.

崔珍源, 『국문학과 자연』.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6.

崔珍源, 「고려가요 연구의 현황과 전망」.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총서』(1). 서울 집문당 1996.

申斗煥, 『조선전기 민족예악과 관각문학』. 서울: 국학자료원 2004.

申斗煥, 「訥齋 梁誠之의 頌에 대한 一研究」. 『한국시가연구』 제9집 2001, 281~308 쪽

허남춘, 『古典詩歌와 歌樂의 傳統』. 서울: 월인출판사 1999.

국 문 요약

이 논문은 조선전기 한문시가의 한 종류인 한문악장 「친사문묘송」에 관한 미학연구이다. 訥齋 양성지(1415~1482)가 창작한 「親祀文廟頌」은 조선전기 유교적인 신흥의 기분이 가미된 것으로 전8장의 연장체로서 음악과 무용을 의식하여 만든 조선전기 한문악장의 백미이다. 「親祀文廟頌」은 성종 8년 가을에 임금이 성균관 문묘의 추계 釋奠에 참가하여 친히 문묘에 제사하는 성대한 행사를 작자가 직접 목도하고 감동하여 지은 작품이며 그 형식이나 여러가지 구성요소가 樂章의 형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 승유억불정책에 따라 고려조의 불교적인 성격의 악장은 연주되기가 곤란한 분위기였다. 고려조의 구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악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시대에 창작된 訥齋의 「親祀文廟頌」은 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

어 있어 작품의 통일성이 돋보이며,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사의 순서대로 구성된 점에서 서사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한편의 훌륭한 한문 서사 양식의 악장이다. 「親祀文廟頌」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자의 위상을 드러내어 성인의 표상을 드러낸 ‘皇聖’ 장 성종이 문묘에 배향하는 성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廟食’ 장 태조가 유교를 국시로 삼고 조선을 개국한 이래로 성종에 이르기까지 문묘가 계승되어온 과정을 노래한 ‘垂憲’ 장 성종이 성인의 자질로 친히 문묘에 배향하는 것을 묘사한 ‘親祀’ 장 성종이 문묘에서 親祀文廟를 마치고 명륜당에 거동하여 알성시를 베푸는 장면을 형상화한 ‘作人’ 장, 대사단에서 열리는 활쏘기 시합 즉 대사례를 형상화한 ‘大射’ 장 군신상하가 화락하며 즐기는 잔치를 형상화한 ‘賜宴’ 장 모든 행사를 뒤돌아보며 성인의 다스림과 태평성대의 만세를 길이 보전하자는 여운을 남기며 결말짓는 ‘永保’의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장은 4언 2 절의 형태로 8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親祀文廟頌」은 유평진작을 염두에 두고 지은 유교적인 프로파간다이다.

「親祀文廟頌」은 악장으로서 전아하고 호건한 미의식이 발견된다. 종묘제례 같은 악무와 어우러진 송영을 감안할 때 우아미와 엄숙미가 있으며 정제미가 있다. 이것은 궁중에서 이루어진 궁정문학이며 「親祀文廟頌」에는 개성적인 것과 함께 민족 독창적인 것을 주장이 들어있으며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의 묘사나 구체적인 시간설정 그리고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서사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성종의 친사문묘를 직접 목도하고 그 감동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형상화한 작품이어서 사건 전개가 통일되어 있고 생동감과 현장감이 있으며 사실적이다.

● 투고일 : 2006. 7. 10.

● 심사완료일 : 2006. 8. 29.

● 주제어(keyword) : 놀재 양성지(Nooljae Yang Seong-ji), 한문 악장 (Chinese Writings a movement of music), 親祀文廟頌(An eulogy of a festival bow respectfully confucian shrine), 유교적 프로파간다(confucian propaganda), 호건 (the large-minded and free-heartedness), 전아 (the elegance)